

고즈넉한 산사로 나홀로 나들이 가볼까

한 해를 보낼 때 습관처럼 쓰던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올해처럼 실감나는 해가 또 있었을까. 바쁘고 고달팠던 2020년이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으로 모든 일상이 조심스러운 지금은 연말도 차분하게 혼자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서울관광재단이 올해 마지막 서울 여행지로 추천한 은평구에는 한 가로운 편백나무숲 산책로부터 고즈넉한 겨울 산사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홀로 나들이에 맞는 명소가 많다.



유서 깊은 수국사, 황금법당 눈길
진관사 산책로, 겨울산 운치 매력
봉산 편백나무숲서 피톤치드 힐링



코로나19 시대에 차분하게 한 해를 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서울 은평구의 명소들. 수국사 경내의 '대웅보전', 진관사 내부의 산책로 '마음의 정원', 은평한옥마을의 '셋이서문학관', 시아가 탁 트인 봉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대'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 겨울 정취 무르익은 은평 3대 사찰

봉산 자락의 수국사는 조선 세조 때 창건한 제법 유서깊은 사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화려한 대웅보전에 눈에 띈다. 전통 목조법당 안팎을 순금으로 칠한 황금법당이다. 대웅보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다. 이곳에서는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하루 한 끼 공양에 매일 6시간씩 수양하는 묵연수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한산 아래에 있는 진관사와 삼천사는 한옥마을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함께 둘러보기 좋다. 삼천사는 사찰 입구에서 계속 따라 걷는 길의 경치가 멋지다. 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산 계곡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남다르다. 대웅전 왼쪽 산신각 아래 병풍바위에는 보물 제657호 마애여래입상이 있다.

삼천사에서 한옥마을로 내려와 진관사로 가는 길은 '백초월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을 했던 백초월 스님을 기리기 위해 붙였다. 진관사 일주문을 지나면 '마음

의 정원'이라는 산책로가 나오는데 고요한 겨울 산사의 정취를 느끼기 좋다.

● 편백나무숲 산책과 봉산 일출

편백나무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데, 은평구는 2014년부터 숭실고 뒷편 봉산 자락에 편백나무숲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심은 편백나무가 1만2000그루가 넘는다. 아직은 숲의 나이가 얼마 안돼 아주 울창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철 푸름을 유지하고, 피톤치드가 왕성한 편백나무 특성 때문에 겨울에도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봉산 정상에는 조선시대에 도성에 소속을 알리던 봉수대가 있다. 높이는

207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산등성이 능선을 따라 걷는 재미가 있다. 봉수대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 해맞이 행사를 매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식행사가 열리지 않는다. 봉수대에서 일출을 볼 때 가장 쉬운 코스는 수국사 뒤편의 등산로 길이다. 약 30분만 걸으면 된다. 다만, 시작부터 능선에 올라갈 때까지 계단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한다.

● 은평한옥마을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 북촌이 1920년대 전후 근대 한옥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은평한옥마을은 미래지향적인 현대 한옥을

만날 수 있다. 카페나 음식점, 숙소, 체험장소 등도 있지만 나머지는 주민 주거 공간이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에터켓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이곳에 있는 셋이서 문학관은 이름처럼 은평 출신 문인 천상병, 증광, 이외수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옆의 삼각산 금암미술관은 원래는 모델하우스였으나, 현재는 '한옥 속 미술관'이라는 테마로 한국 문화를 감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2014년 10월 개관했다. 3층 한옥실에서 한옥의 원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날씨와 생활

24일(목)

서울	60/0	인천	30/10	수원	30/10
	0 3		0 3		-1 3
춘천	60/0	강릉	0/0	청주	60/20
	-2 4		6 8		2 6
대전	60/20	전주	30/20	광주	30/20
	2 7		3 8		3 10
대구	20/0	울산	20/0	부산	20/0
	1 9		4 11		7 12
창원	20/0	제주	6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3 11		10 12	날씨	최저 최고 최고기온 C

☀ 해돋이 07:45 해질 17:19 🌙 달돋음 13:46 달질 01:58

산 날씨

북한산		-3/3	내장산		3/8
설악산		4/6	무등산		2/9
오대산		-1/4	주왕산		1/7
속리산		0/6	지리산		3/12
계룡산		-1/6	한라산		10/15

바다 날씨

인천출도		0/2	안면도 꽃지		-1/6
제주도		-1/3	변산반도		4/9
경포대		6/8	거문도		2/11
속초		4/6	해운대		7/12
대전		-1/4	제주도		10/12

미세먼지

서울	47	보통	대전	39	보통
부산	46	보통	경기	52	보통
대구	51	보통	강원	48	보통
인천	45	보통	전북	53	보통
광주	62	보통	제주	23	좋음

1879골프, 무알콜 와인 '1879 Z 마셋제로' 출시

1879골프가 골프 라운딩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무알콜 와인 '1879 Z 마셋제로(1879 Z MASET ZERO·사진)'를 월드와인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출시했다.

1879 Z 마셋제로는 전통 와인 발효 후 새로운 방식의 탈알콜화 방법으로 정교하게 제조돼 천연의 맛과 향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유지시킨 알콜도수 0%의 무알콜 웰빙 와인이다.



황금빛 컬러와 장미꽃향이 특징으로 입안 가득 느껴지는 버블과 산미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행사나 파티주는 물론이고 골프 라운딩을 즐기며 마시기에 안성맞춤이다. 가격은 750ml 기준 5만 원.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한국관광공사-넷플릭스, 'K-콘텐츠' 다큐멘터리 공개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손잡고 공동제작 다큐멘터리를 23일 공개했다. 7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콘텐츠를 활용한 'Explore Korea'에 이어, 이번에는 한류 콘텐츠를 세계에 알린 인물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Next in K-Story'를 제작했다.

연출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한경수 프로듀서가 맡았다. 총 2편으로 '세

프의 테이블'에서 사찰음식으로 세계의 이목을 끈 정관스님, '넥스트 인 패션'의 우승자이자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화제가 된 김민주 디자이너가 각각 출연한다.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visitkorea)과 해외홍보 SNS에서 볼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83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영형호
	사진부장	고정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24일(목) 음력: 11월 1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가시밭길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힘이 넘친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힘찬 하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일출 직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소망 많다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허무한 마음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 안절부절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절제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집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 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화개는 화개를 만났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나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행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천살은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이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은 월살이다. 주변의 변화로 이익이 된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적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험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평화롭다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갈등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소심한 마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생애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자유 추구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겨우 해결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 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천살일이며 말띠에게는 신시이다. 천살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월살일이며 양띠에게는 비견이다. 오늘은 집수리나 이사로 안 되고 혼인 등 좋은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함부로 인간임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집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화개일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요,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월살일이다. 월살이란 모든 일의 침체, 장벽, 좌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